

중학생부	평가영역별 예시문제 보기
------	---------------

[비판적 이해 능력]

1. 이 책의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시착 첫날’, ‘불청객 2일째’, ‘버드 실종 80일째’처럼 장마다 소재목이 붙어 있어 단비를 비롯해 여러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시점에서 기록한 일지를 보는 듯해 재미있었다.
- ② 지금으로부터 채 100년도 되지 않는 미래에서 온 소녀 버드의 눈을 통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상 과학 소설이라 매우 흥미로웠다.
- ③ 버드를 보고 ‘멀리서 왔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본 서창 할머니는 오래 산 사람들이 저절로 갖게 되는 지혜와 예언자적인 면모를 갖춘 듯해 마치 우리나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신 같았다.
- ④ 청수와수원 아저씨가 사과 탄저균이 돌까 봐 호두나무를 말려 죽인 것을 보고 한 해 농사를 망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을 죽이는 인간의 이기심이 무서워졌다.
- ⑤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서 번개의 신이고, ‘단비’는 꼭 필요한 때에 적당하게 내리는 비, ‘알마’는 카자흐스탄 말로 ‘사과’라는 뜻을 갖는다는 데서 작가가 많은 정성을 들여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적 이해 능력]

2. 팬데믹을 일으킨 감염병과 그것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1차 페스트: 541년 처음 동로마제국을 덮친 이후 200여 년 동안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게 만듦으로써,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해진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 ② 2차 페스트: 14세기에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죽은 자들이 남긴 땅과 재산을 헐값에 구입해 부자가 된 신흥 중산계층이 등장하면서 봉건주의 사회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천연두: 16세기에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 군대에 의해 퍼지면서 남미 여러 나라의 원주민이 몰살당했고, 그 결과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실어 오면서 인종 차별의 역사가 싹트게 되었다.
- ④ 황열병: 1802년 중남미의 아이티를 점령한 프랑스 군사들 사이에 퍼지면서 수많은 젊은 군사들이 죽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폴레옹이 철수하게 되고, 그 결과 미국이 중남미 아메리카의 패권 국가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 ⑤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제1차 세계대전 때 발생해 많은 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전쟁 후 패전국인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고 소비에트 연방과 이라크가 세워지는 등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데 한몫을 했다.

[추론적 이해 능력]

3.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자: 지구의 마지막 사과 품종이 ‘오로라 2-241’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버드: (㉠)

독자: 사과 씨앗을 가지고 토르와 거래하려던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버드: (㉡)

- ① ㉠: 사과 품종에 붙은 숫자 ‘2-241’은 저와 단비만이 아는 암호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단비와 저는 함께 오로라 품종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마지막으로 수확할 수 있었던 사과는 단 두 알뿐이었어요. 제가 지구에 머문 기간은 241일이었고요.
- ② ㉠: ‘2-241’이라는 숫자 속에 단비가 저와 함께했던 추억을 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떠난 뒤에도 단비가 계속 사과 농사를 지었고, 점점 척박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저와 함께했던 시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데 놀라고 한편 고마웠어요.
- ③ ㉡: 단비가 토르사의 황포에 맞서 품종을 개발하고 자연적인 환경에서 사과나무를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게임 스토리 작가가 꿈이었는데 그 꿈을 버리고 농부가 된 단비는 제가 토르월드로 가져온 네 개의 씨앗에 희망을 걸었을 거예요.
- ④ ㉡: 단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자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단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로라 2-241을 개발하고 지키기 위해 애썼는데 저는 고작 저와 제 가족의 안위를 위해 토르와 거래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어요.
- ⑤ ㉡: 제가 직접 토르월드에서 토르 몰래 진짜 사과나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단비의 죽음과 제게 남은 오로라 품종의 씨앗을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구가 아닌 토르월드에서 단비의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어휘 능력]

4. 밑줄 친 부분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엄마는 마뜩잖은 표정이었다.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
- ②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졌어도 원래는 엄마의 머리카락과 같은 색깔이었다.
→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게 세다.
- ③ 어찌다가 입을 열 때면 으르딱딱거리며 상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겁을 먹게 하다.
- ④ 가게 주인은 바지와 전혀 안 어울리는 추레한 양복 재킷을 입고 다녔다.
→ 허술하여 보잘것없고 궁상스럽다.
- ⑤ 할머니는 어딘지 모를 낯선 세계로 내던져진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
→ 물기나 때 따위를 닦아 깨끗이 하다.

5. [가]의 러지어와 [나]의 포르스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미국의 의사였던 제시 러지어는 육군 군의관으로 쿠바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황열병의 원인이 모기가 옮기는 병원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기를 방치해 수많은 군인이 죽어가는 상황을 더 이상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모기에 물려 이를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1900년 9월 13일 러지어는 모기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고 피를 빨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 모기는 황열병 환자의 피를 빨 모기였다. 불행히도 며칠 후 러지어에게 황열병 증상이 나타났고, 9월 25일 사망했다. 사망 전까지 러지어는 모기에 물린 뒤 황열병 증상이 나타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고, 이 기록은 모기가 황열병을 옮기는 원인임을 밝히는 길을 열었다.

- 《왜 바이러스가 문제일까?》 -

[나]

독일의 젊은 수련의 베르너 포르스만은 혈관을 통해 심장 속까지 카테터를 찢어 넣어 심혈관계의 혈압과 성분을 측정하는 심장병 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의학계에서 사람의 목숨과 연계된 심장에 카테터를 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도 말이다.

결국 포르스만은 1929년, 자신의 심장에 가늘고 긴 관을 64cm나 찢어 넣는 실험을 감행했다. 실험에 자원한 간호사를 숙이고 직접 자신의 몸에 카테터를 삽입한 뒤, 엑스선 촬영실 간호사도 불렀다. 심장까지 이어진 카테터는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 또한 없었다. 그는 자신의 흉곽과 심장의 엑스선 촬영을 통해 심장 카테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포르스만의 세계 최초 심장 카테터법은 심장학에 새로운 기원을 열었고 오늘날 심장 계통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고를 인정받아 포르스만은 1956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다.

- 〈다음 백과〉, 재구성 -

* 카테터(Catheter): 고무 또는 금속제의 가느다란 관으로, 병을 다루거나 수술을 할 때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용 기구.

- ① 의학사에 길이 남을 연구 업적을 쌓기 위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
- ②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하고 왜 병에 걸리는지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많은 태도
- ③ 의학자로서 자신이 세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꼼꼼하게 실험 계획을 세우는 태도
- ④ 심각한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고 실천에 옮기는 태도
- ⑤ 자신의 신체를 실험 대상으로 써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해 주고 싶어 하는 희생적인 태도